시 론

축산업 진출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 준비하는 사조그룹

이 창 주
㈜ 사조바이오피드
대표이사

축산업계는 2008년 사료값 급등으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로 소규모 농가들이 입지가 줄어들고 대형 계열화 업체들과 그 위탁 농장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다. 축산업에서는 안정적인 원료 확보, 맛 등 품질 관리, 브랜드 및 마케팅, 판매처 확보차원에서 수직계열화가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특히 품종, 사료, 사육방법, 가공, 유통 등 각 단계별 어느 한 부분에서의 차이가 품질에 큰 차이를 가져오므로 통합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계열화를 이루고, 개별경영이 안고 있는 단점과 모순을 상호 보완하고, 경영합리화로 농가 소득 극대화에도 일조하는 등 축산업발전의 중추적인 경영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사조는 수산을 모태로 출발하여 현재는 사조참치 외에도 해표식용유, 대림선어묵, 오양맛살 등을 필두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왔으며, 신수종 사업으로 축산사업에 뜻을 두고 그 첫 발을 내딛고 있다.

그간 사조의 사업형태는 식량자원 확보와 국민의 먹거리를 위한 사업에 주력하여 왔다. 이러한 사조의 사업영역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업 중 그룹의 신성장 동력이 될 사업을 모색하던 중, 현대화와 친환경적인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을 통하여 또 하나의 국민 먹거리를 제공하기 하자는 뜻에서 축산업을 신수종 사업으로 선정하고 축산업에 진출하게 되었다.

축산사업 진출을 위해 2011년 1월 전남 함평에서 사료공장을 첫 가동하였고, 같은해 충남 홍성에 있던 파레스바이오피드 공장을 인수하여 사료사업에 본격 뛰어 들었다.

또한 보령과 김제의 도계장을 인수하고, 종계장, 부화장 및 양계 농장을 지속적으로 설립, 인수하면서 축산사업에서 수직계열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계열화 사업과 연계해 양축농가에게 양질의 사료 및 사육기반 조성을 위한 안정된 종합축산회사를 이루고자 한다.

비록 이제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분야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해 축산분야가 사조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사업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고자 하며, 국내 축산업을 책임지는 기업으로 발전 하고자 한다.

처음 축산업 진출에 뜻을 두고 사료공장을 경매로 낙찰 받아 공장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이제 막 축산업에 진출한 새내기로서는 사업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업계 여러 선배님들과 협회의 도움, 그리고 당시 우연히 발견한 구 대원사료 직원들의 비상연락망을 보고 이전에 근무한 직원들을 일일이 찾아 다니며 다시 공장으로 복귀 시켜 공장을 정상화 시킬 수 있었다.

공장 설비와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직원들을 고용함으로써 초기 투자자본 절감과 조직 슬림화 이룰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2년여간 가동이 중지 되었던 홍성(舊 파레스 바이오피드)공장을 인수 후 약 5개월만에 HACCP심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협회와 업계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

작년 말 FMD로 축산업계의 많은 분들이 아픔을 겪었겠지만, 사조 또한 양돈장 2곳 중 1곳의 돼지 12,000두를 살처분하면서 겪었던 안타까움과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다. 다행히 FMD는 소강상태로 접어던지 1년이 되어가고 있어 안심은 되고 있으나 좀더 철저한 대비를 못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과거 사조의 역사는 수산자원 '개척' 이었다. 1971년 참치 독항 사업으로 첫 출항한 이래 오대양을 개척해 온 사조의 도전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며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 수산업계의 선두주자로 성장한 사조는 이제 축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혀 제2의 자원을 확보하고자 한다.

꿈꾸지 않는 자에게는 성공이 없듯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용기로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최상의 자원을 개발하고 세계를 개척하는 도전정신을 잃지 않고 지켜 나갈 것이며, 고객에게 믿음을 주고 최고의 품질을 지향하고자 한다.

우리 사료업계와 축산농가는 해양투기 금지로 인한 가축분뇨 처리문제, 축산업 허가제 도입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신규진입 억제,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원가 급등 이외에도 한·미 FTA, 한·EU FTA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한·중FTA 등 새로운 도전을 위한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망망대해를 마주하고 있다.

사료업계 뿐만 아니라 축산업에 종사는 우리 모두는 그 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닥쳐올 험난한 시련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길 희망한다.